

본질 IV.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삶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다.

[요한복음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무엘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1. 영성

영성이 중요하다. 영성은 그 사람을 말해주는 보이지 않는 정체성이다. 영성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정렬 되었는가에 따라 영성의 본질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의 중심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투명함과 정직함을 말한다.

내가 온전하느냐, 온전하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는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됴됨이의 수준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판단은 인간의 몫이 아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판단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다. 판단과 분별은 다르다. 판단은 내 생각으로 단정짓는 것을 말하며, 분별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분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2. 세상의 영

왜 이것이 중요한가? 세상의 영은 '판단' 으로부터 시작된다. 중심이 '나'이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나타난 인류 최초의 범죄는 내가 중심이 된 '판단'이며, 그것이 금단의 선악과를 스스로 규정해서 먹게 했다. 그리고 '판단'의 저주는 인간의 삶 안에 자신을 비추어야 하는 기준의 '거울'이 되었다. 즉,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의 정렬에 내 자신을 비추는 것이다. 세상의 성공, 명예, 영향력 등 이다. 그 기준에 도달하면 남으로부터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 받는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내 자신을 비추라는 끝없는 유혹이 내 마음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 사람을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구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소리에 자신을 맞추기 시작할 때 사울은 변질되었고, 그 지도자의 변질은 이스라엘을 곤경에 빠지게 했다. 세상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는, 결국 그 사람을 묶는다. 그리고 내면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와 누림을 빼앗아간다. 그래서 지치는 것이다.

3. 목회, 교회, 내 자신

목회와 교회도, 개인의 영성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결국 처음과 달리 변질된다. 처음은 모두가 좋다. 사울도 처음은 좋았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나중이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신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정체성에 나타난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다." 이 말은 처음과 나중이 같다는 것이다. 어떤 변질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그렇지 않다.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 처음은 모두가 같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라. 모두가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끝은 모두가 다르다. 영광스러운 존재도 있지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도 있는 것을 본다. 무엇이 문제인가? '변질' 이다.

이에 대하여 ‘레베카 드영’ 이 쓴 ‘Vainglory(허영)’ 이란 책에 보면, 변질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훈련한 사막 교부들과 수도사들의 영성이 소개된다. 그들의 영성이 주목했던 것은 ‘영광이 끝өг가서 잘못된 경우들에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자신에 적용하여 훈련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풍성한 삶을 위해서였다.

4.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의 영성과 목회자의 영성

결국 목회를 하다보니, 한가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있다. 교회가 처한 현실은 세상 한 복판이다. 마찬가지로이다. 목회자는 성도안에 있는 많은 문제 한 복판에 서있다. 그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주변에서 들리는 끊임없는 소리에 반응하게 된다. 그것이 좋은 소리이든, 나쁜 소리이든 반응한다. 나쁜 소리는 나에게 분노와 정죄감, 수치심, 걱정, 근심 등,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소리이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인정해주는 칭찬의 소리는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이 누리며 변질되어 가도록 한다.

처음에 자신을 향한 칭찬과 그로인한 사람들의 주목에 자신을 계속 노출시킬 때,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말하는 영광의 소리에 주목하며 집중한다.

5. 나만, 우리만 독특하다는 특별함으로부터 자유하라. 탁월함이라는 함정!

우리를 눈에 띄게 ‘구별시키는 탁월함’ 을 쫓아가지 마라. 그 탁월함이라는 함정의 늪이 나를 수렁에 빠지게 한다.

6. 광야로 나아가는 것

[이사야 40: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성경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다. 결국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에 있으나 광야의 영성이 있는 사람과 교회이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나와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곳이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이 무의미하게 되는 곳이다. 이 말은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신 이유에 있다. 애굽으로부터 오는 모든 소리가 차단되며, 영향력이 차단되는 곳이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밤낮으로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를 살게하는 진정한 소리임을 아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굽의 삶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광야는 애굽의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것이 부유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진정한 삶이다.

7. 성공의 열쇠는 바깥에 있지 않다. 내면에 있다.

세상의 기준에 인이 박힌 사람들, 그들의 기준에 맞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중심안에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한다. 내 안에 사울처럼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 자신을 부인하는 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한다.